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 귀환

“우주서 본 한반도는 하나였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하나였어요.”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씨는 19일 오후(한국시간) 지구 귀환 후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소유즈를 타기 직전에 봤던 한반도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 제가 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언젠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씨와 러시아 우주인 유리 말렌첸코가 카자흐스탄 전통의상 차림으로 참석했으며 미국 여성 우주인 페기 윌슨은 우주 멀미가 심해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은 이소연씨의 일문일답.  
-우주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훈련받을 때 스피닝 체어가 가장 어려웠다.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재미있고 환상적이었다. 특히 우주에서는 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 공간이 좁지만 상하좌우로 다 움직일 수 있었다. 지금은 날 수 없다는 게 혼란스럽다.

-우주에 다녀온 소감은.

▲제가 가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경험을, 많은 실험 결과들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행 10일보다 다녀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알려드리고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 차리는 데로 최대한 노력해 이 소중한 경험을 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다.

그냥 한 사람이 비행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고 온 국민이 다 같이 간 것처럼 기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주에서 내려다 본 한반도는 어떤 모습 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나.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하나더라. 그리고 제주도도 내려오기 직전에 봤다. 사진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는 못 보다가 마지막 소유즈 타기 직전에 한반도하고 제주도를 봐서 사진촬영은 못하고 눈으로만 본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끝에 이르러도 나를 우주비행사들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곧 내려가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니가 가슴도 벅차고, 그 어느 때 봤던 한반도의 모습보다 마지막 소유즈 타기 직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화장실 가고 싶다.(웃음)  
-앞으로의 계획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우주 체험에 대해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주에서 수행한 과학실험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제 다음에 나를 우주비행사들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19일 오후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를 타고 카자흐스탄 북부 초원지대에 안착한 뒤 지상요원들의 도움으로 모터를 빠져나와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소연씨 고향 광주 표정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씨가 12일간의 우주 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19일 무사 귀환하자 고향 광주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최초 우주인 배출에 대한 환영과 기대가 넘쳐났다.

TV를 통해 지구귀환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귀환 모듈이 예상지점보다 478km 가량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는 소식에 한 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후 이 씨가 무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지르며 무사 귀환을 기뻐했다.

무사 귀환 환호...“과학 꿈나무 귀감 되길”

무사 귀환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 권소이(63·여·광주시 북구 두암동) 씨는 “내 마음도 절절한 데 부모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며 “그 무엇보다 무사히 잘 다녀와 기쁘다”고 환영했다.

광주과학고 재학생인 이씨에게 국어를 가르쳤던 최윤길 교감은 “무사히 건강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해 너무 기쁘고 무량하다”며 “과학 꿈나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교육의 큰 역할을,

초석을 다지는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후배인 광주과학고 2학년 박재철 군은 “지구 적응 잘 마쳐 밝은 모습으로 귀국하고 우리 학교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아버지 이길수(60)씨와 어머니 정금순(59)씨는 서울에서 TV를 통해 이씨의 귀환 과정을 지켜봤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

매년 한차례씩...올 가을 일본서 첫 회담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한차례 각국을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올 가을 첫 회담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달 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정식 합의할 방침이다. 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3개국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발언력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구상의 취지다.

일본에서 개최될 1차 한중일 정기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중국의 황사에 따른 환경피해 ▲지적 재산권 보호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등을 중심으로 각국간 조정 이 이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필요한 사전 조정 및 협의를 위해 3개국 외무장관 회담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1999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전 수상의 제안으로 아세안 정상회담과 함께 실시돼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과 환경문제 등 한중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와 별도의 형식으로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곧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종전의 융화정책에서 전환해 일본과 연대하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북한 지원에 긍정적인 중국과의 교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한인 여학생 6명 집단폭행 뉴질랜드 충격

연적관계 소녀 감금 폭행...청소년 법원 유죄판결

뉴질랜드에 유학중인 한국인 10대 소녀들이 남자 친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소녀를 감금한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현지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뉴질랜드 선데이 스타 타임스는 20일 ‘뉴질랜드에 유학중인 15세에서 17세 사이 한국인 소녀 6명이 연적 관계에 있던 16세 소녀를 감금해 놓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주 청소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며 이들은 모두 뉴질랜드 유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역 한인사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존 조씨의 말을 인용, 이들 소녀들이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는 비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모범적인 젊은이들이 뉴질랜드에 온 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문은 대부분 상위권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소녀들이 지난 2월 오클랜드에 있는 한 슈퍼마켓 부근에서 같은 한국인인 피해자 소녀를 붙잡아 1시간 이상 감금하며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면서 이들은 한 소녀를 놓고 오랫동안 싸움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소녀들 중 일부는 뉴질랜드에 유학을 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고 일부는 하숙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를 포함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소녀들은 극심한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본선 승리 가능성 힐러리 보다 높아

전국 여론조사 56%대43%...1월 조사와 정반대 결과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 비해 대선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개된 AP-아후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전체 1천800명의 설문대상자 가운데 56%를 차지한 반면 힐러리의 경우는 43%에 그쳤다. 이는 힐러리 56%, 오바마 33%였던 지난 1월의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후보간 공방이 격렬해 지

면서 득(得) 못지않게 실(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바마는 그의 멘토격인 제레미아 라이트 목사의 ‘갓털 아메리카(빌어먹을 미국)’ 발언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정직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AP는 전했다. 오바마를 부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지난해 가을에는 18%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7%까지 치솟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펜실베이니아에서 22일 열리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에는 158명의 대의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중 남부 21년만의 폭우

이재민 수백만명 발생

중국 남부 지역에 올해 1호 태풍 너구리가 상륙, 중국 최남단 지역인 하이난다오(海南島)를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130여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너구리는 중심풍속이 13급에 이르는 강한 태풍이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하이난다오 인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어선 3척이 침몰,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2명 중 18명이 실종된 상태다. 또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1천30ha로 2억5천200만 위안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550채의 가옥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은 총 2억37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ngyanghan' (당양한과) featuring various fruit bask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당양한과' and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Skin Care' (피부미용사) with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ext includes '피부미용사 특별회원모집' and '10% 할인'.

Advertisement for 'Road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도로교통사고감정사) with details on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ext includes '도로교통사고감정사' and 'CO인증'.